

특집 도시 커먼즈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

공유인 관점으로 바라본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in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Focusing on the Field of the Cooperate Restaurant in
Donui-dong Jjokbangch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ers

이현우** · 정석***

공유 가치 창출은 자원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연구는 도시 내 빈곤밀집지역에 커먼즈(communs)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기존 커먼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빈곤밀집지역 내 도시 커먼즈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기존 커먼즈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로 수집한 정보는 현장일지와 인터뷰 녹취록으로 기록하여 사례연구 분석기법과 인류학 민족지 연구의 일반적 지침에 따라 분석했다. 조사 현장은 돈의동 쪽방촌이고 주요 연구 대상은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마을식당은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 구성된 도시 커먼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자원이 결핍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커먼즈 사례와는 유사했지만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와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유화(commoning)의 핵심 주체인 중추 공유인(key commoner)의 존재와 참여 과정을 기술했다. 이를 통해 커먼즈 형성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현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이론과 공통점, 차이점을 기술하여 도시 커먼즈의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빈자를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의해 정의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한 연구로서 빈곤밀집지역 사례를 통해 공유 가치를 회복하고 모색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도시 커먼즈, 공유인, 쪽방촌, 빈곤밀집지역, 에스노그라피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기초·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lhwnr@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jerome363@uos.ac.kr).

1. 서론

도시는 공유 가치를 잃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밀집성 때문에 커먼즈가 자라나기에 더없이 좋은 비옥한 환경(Bollier, 2015: 200)이다. 하지만 도시 내 토지와 건물처럼 물리적 형태를 띠는 자원은 희소성을 지닌다.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공유되기 어렵고 경합성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도시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유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유화된 자원 때문에 도시 내 공유 가치는 상실했고 이로 인해 도시민 간 관계와 소통도 단절되었다. 그렇다면 공유 가치 창출은 자원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시 내 빈곤밀집지역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원이 더욱 결핍하다. 사유화된 도시, 특히 빈곤밀집지역에서 공유 가치는 창출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에 도시 커먼즈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기존 커먼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커먼즈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커먼즈 논문²⁾은 총 92개다. 그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발행된 커먼즈 논문은 79개로 86%에 해당한다. 하지만 커먼즈 사례 연구를 소재지(所在地)로 구분해 보면 도시화율이 점차 증가하는데도 농산어촌 소재지를 배경으로 하는 사례 연구가 대다수다. 이미 국내 도시화율은 81%에 이르렀지만, 도시 내 커먼즈 사례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자원이 결핍한 빈곤밀집지역을 대상지로 하는 커먼즈 사례 연구도 살펴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시 커먼

1) 가난한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이영아, 2015)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판자촌, 달동네, 산동네 형태로 존재했고 도시재개발사업 이후에는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쪽방촌,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새로운 빈곤밀집현상이 나타났다(탁장한, 2020).

2)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정규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KCI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커먼즈로 하였을 때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검색일: 2022년 12월 4일).

를 경제학적 재화 관점이 아닌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회복하는 실천이자 과정으로서 접근한다면, 빈곤밀집지역에서 도시 커먼즈 발생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돈의동 마을식당 현장을 분석하여 도시 커먼즈 존재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빈자의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여 빈곤밀집지역에서 도시 커먼즈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커먼즈의 형성 과정과 자원이 결핍한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 과정을 비교하면서 형성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도시 커먼즈 존재 여부와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이며 공간적 범위는 도시 내 빈곤밀집지역인 돈의동 쪽방촌³⁾이다. 돈의동 쪽방촌에 19회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참여관찰 결과는 현장일지로 기록하고 녹음한 인터뷰 자료로 녹취록을 작성했다.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연구 배경을 포함한 서론이다. 2장에서는 커먼즈 형성 이론과 공동체 이론을 고찰하고 중추 공유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빈곤밀집지역 쪽방촌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른 관점으로 현장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3장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과 조사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조사 현장의 공간적 배경을 기술하고 5장은 현장일지와 인터뷰 자료로 현장을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인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 요소와 요인’을 기술한다. 6장은 논의 및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살펴보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다.

3) 쪽방은 약 0.5평~1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로 운영되는 무허가 숙박시설(김수현, 2002)이다. 일세는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월세는 26만 원 안팎이다. 월세 26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착취도시, 서울』에 따르면, 쪽방의 평균 평당 임대료 18만 2,550원.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월세인 3만9400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임대료다. 쪽방촌은 쪽방이 밀집한 지역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커먼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커먼즈 논의 배경

커먼즈는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freedom in a commons)’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유지의 비극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1776)에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반박에서 시작했다. 하딘(Hardin, 1998: 1244)은 목초지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공유지가 망가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딘(Hardin, 1998: 1245)은 공유지를 팔아서 사적 소유물로 만들거나 공적 소유물로 남기되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실 하딘이 주목한 건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 자체는 아니었고 비극의 원인을 ‘인구 문제’⁴⁾로 봤다. 그럼에도 하딘의 공유지 논의를 통해 커먼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주류 경제학의 자원 분류를 통해 감소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을 커먼즈로 정의했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시민의 공동협력으로 공유지의 자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커먼즈 논의에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유기현, 2021). 공유자원은 공공재(public goods)와는 차이를 보인다. 공공재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지 않지만 공유자원의 경우 ‘혼잡 효과’나 ‘남용’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존재(Ostrom, 2010: 74)하기 때문에 오스트롬은 공유된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4) 그가 주목한 건 관리되지 않는 ‘원인’에 있었다. 하딘(Hardin, 1998: 1248)은 늘어나는 인구 과다의 비극으로 인해 식량, 쓰레기장, 공해, 쇼핑 센터의 소음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인구 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그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인구 문제’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고자 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자원도 줄어든다는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필요성을 주장했다. 커먼즈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종합(정영신, 2020)하여 공유의 딜레마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커먼즈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고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커먼즈를 발견하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Hess(2008)는 자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커먼즈 지도를 만들었다. 커먼즈를 전통, 인접 지역, 의료 및 보건, 문화, 지식, 시장, 인프라, 글로벌 커먼즈로 분류했다. 나아가 유무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원에까지 확대(Feinberg, 2021; Comune di Bologna, 2014)되었다. 반면 Aguiton(2018: 90)은 ‘재화’로서의 커먼즈보다는 ‘공동으로 누리는 것’으로서의 커먼즈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을 주장했다.

(2) 국내외 커먼즈 개념

해외 커먼즈 연구에 이어 국내에서도 커먼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커먼즈 논문은 총 92개다. 그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발행된 커먼즈 논문은 79개로 86%에 해당한다.

커먼즈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다수 연구가 Bollier(2015)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Linebaugh(2012)는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을 포함하는 것을 커먼즈라고 정의했고, Bollier(2015)는 자원을 넘어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 통합되고 상호 연관된 전체를 커먼즈라고 정의했다. Bauwen(2017)은 Bollier(2015)의 정의를 따랐고 Feinberg et al.(2021)는 Bollier(2015)와 유사하게 자원, 사용자, 결속 제도 및 관련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도 자원, 공동체, 규약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된 전체이자 세 가지 구성 요소 간 상호 관계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내 연구자들은 커먼즈(communs)의 번역어를 저마다 달리 사용해 왔다. 하지만 다수 연구자들이 커먼즈가 지닌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 때문에 음역 그대로 ‘커먼즈’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도 공유지,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

<표 1> 국내외 연구의 커먼즈 정의와 요소

연구자	커먼즈 정의	커먼즈 요소
해외	Linebaugh (2012)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을 포함	자원, 관계, 실천
	Bollier (2015) 자원을 넘어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 통합되고 상호 연관된 전체	자원, 공동체, 규약
	Bauwen (2017) Bollier의 정의를 따라 규칙과 규범에 따라 사용자 및/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공유 및/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유 자원	자원, 공동체, 규약
	Feinberg et al. (2021) 자원, 사용자, 결속 제도 및 관련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	자원, 공동체, 제도
국내	정남영 (2015) Bollier(2015)의 정의에 따라 자원+일련의 사회적규약+공동체	자원, 공동체, 규약
	윤여일 (2017) 자원+일련의 사회적규약+공동체	자원, 공동체, 규약
	이승원 (2019) 공동자원, 공동자원을 커먼즈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 공동자원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	자원, 공동체, 제도
	이광석 외 (2020) 공동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자원	공동체, 자원
	박인권 외 (2021) 공동자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성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주체인 공동체와 각종 규범 및 제도까지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뜻함. ‘공유지’라는 역어가 지닌 협소함 때문에 커먼즈라는 용어 사용	자원, 공동체, 제도
	유기현 (2021) 주류경제학 자원 분류에서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	자원
	최정은 (2022) Bollier(2015), 정남영(2015) 연구에 따라 ‘자원+공동체+일단의 사회적 프로토콜들(규약)’로 정의한다	자원, 공동체, 규약

유재 등 번역어가 지닌 협소함을 피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commons를 음역 그대로 ‘커먼즈’로 칭한다.

공유화(commoning)는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들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상호지원, 갈등, 협상, 소통 그리고 실험의 행위(Bollier, 2016)를 뜻한다. 음역 그대로 ‘커머닝’(정영신, 2017; 안수정, 2020)이라고 부르는 선행연구(정영신, 2017)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Bollier(2015)의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번역본을 따라 commoning을 공유화로 칭한다.

<표 2> 도시 커먼즈 정의

연구자	도시 커먼즈 정의
Angelis (2010)	도시의 사유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 저항하여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이자 대안적 삶의 방식이자 공유의 대상이 되는 자원
Linebaugh (2012)	공유화가 반영된 참여, 집합적 행동, 자가 조직화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
Urban Center Bologna (2014)	도시 내에서 공유된 유무형 재화
Dawney et al. (2015)	도시 커먼즈는 환경보호 관심과 현실 정치, 도시 운동과 농촌 저항 운동을, 지역 투쟁과 파벌 정치 지역 투쟁과 국제 정치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
Floco (2019)	도시 커먼즈는 커먼즈의 논리에 따라 기능하는 동시에 시민, 사용자, 주민 그리고 여타의 관련 단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
Feinberg et al. (2021)	도시 내에서 공유된 유무형 재화
이승원 (2018)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도시 공간 생산자로서 도시민의 영역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
홍덕화 (2018)	도시권적 실천에 따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걸쳐 형성되는 유동적인 공간
박인권 외 (2019)	시장적 사회관계에 대항하여 자원을 사용자 공동체 모두의 공동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의 산물
이승원 (2019)	자연 커먼즈와는 달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고 금지된 커먼즈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
안수정 (2020)	도시민들의 삶의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도시민들의 연대로 형성하는 공간
이광석 외 (2020)	공간, 기반시설, 장비, 지역 서비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커먼즈의 논리에 따라 기능하는 동시에 시민, 사용자, 주민 그리고 여타의 관련 단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Folco, 2017)
유기현 (2021)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동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공유자원
조성찬 (2022)	토지, 주택, 교통, 전기, 가스 등 시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자원과 서비스
양준호 외 (2019)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적 실천

공유인(commoner)은 Bollier(2015)의 의미를 차용하여 커먼즈 세 가지 요소 중 공동체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으로서 커먼즈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주체로 정의한다. Bollier(2015)는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에서 공유인은 현대 공유 사

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정의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인)’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urban)’와 ‘커먼즈’가 결합된 개념이다. 하지만 도시 커먼즈에 관한 공통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Linebaugh(2012)는 도시 커먼즈를 공유화가 반영된 참여, 집합적 행동, 자가 조직화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Feinberg et al.(2021)은 Urban Center Bologna(2014)를 따라 도시 내에서 공유된 유무형 재화라고 정의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조성찬(2022)은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커먼즈를 정의했다. 홍덕화(2018), 안수정(2020), 이광석 외(2020), 유기현(2021)도 도시 커먼즈를 자원이나 재화로 정의했지만, 실천·연대·관리의 의미를 포함했다. 도시라는 공간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실천·복원·연대라는 도시민의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실천을 더욱 강조한 관점(박인권 외, 2019; 이승원, 2019; 안수정, 2020; 홍지은, 2022)으로서 도시 커먼즈를 정의하기도 한다. 도시 커먼즈를 운동으로 부르는 연구(Dawney et al., 2015; 이승원, 2018; 양준호 외, 2019)도 발견된다.

도시는 시장질서가 잘 작동하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 연구에서 도시 커먼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실천 도구이자 과정이 되는 도시 내 커먼즈로 정의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커먼즈는 자원, 공동체, 규약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되 상호 관계성이 나타나는 개념이다. 커먼즈에는 공동체의 공유화라는 실천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도 커먼즈 요소를 갖추어야만 한다.

(3) 국내 커먼즈 형성 이론 고찰

이 연구는 커먼즈 형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 커먼즈 사례 연구 30개⁵⁾를 검토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사례 연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논문제목이나 키워드에 ‘커먼즈’가 포함되거나 논문제목에 공동자원 사례, 공유자원 사례, 공유재 사례, 공유지 사례로 검색된

첫째, 국내 커먼즈 논의에서는 여전히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한살림서울 돌봄사업(홍덕화, 2018), 청주시 먹거리(이해리, 2019), 공동체주택(이경미, 2020), 마을호텔(류석진 외, 2020), 위스테이 별내(박운혜 외, 2021) 사례를 제외하면 25개의 커먼즈 사례 연구는 농산어촌 소재지를 배경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도시 커먼즈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커먼즈의 관점에서 사례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는(한윤애, 2016; 박인권 외, 2019; 홍지은, 2022) 주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농산어촌 소재지를 배경으로 하는 사례 연구들은 수자원, 삼림, 어자원 등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커먼즈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수자원 분쟁 사례(홍성만 외, 2003; 홍성만 외, 2004), 부산 신항만 분쟁 사례(강윤호, 2005), 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윤순진 외, 2009), 제주 선흘리 마을 사례(정영신, 2017) 등이 있다. 도시화율⁶⁾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현대 커먼즈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소재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도시 커먼즈는 지역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커먼즈가 발생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희환(2017)은 놀이터 철거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자산화운동의 사례를, 김자경(2017)은 양돈악취문제를 중심으로 생겨난 커먼즈를, 윤여일(2017)은 자연을 잃은 마을의 사회적 커먼즈를, 이해리(2019)는 청주시 먹거리 지역 문제를, 류석진 외(2020)는 지역재생 관점에서 마을 호텔 커먼즈 사례를, 박운혜 외(2021)는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도시 커먼즈 사례로 소개한다. 공동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송용훈, 2015) 커먼즈가 형성된 것이다.

논문을 대상으로 지역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논문을 추출했다. KCI에 등재된 정규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검색일: 2022년 12월 4일).

- 6)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UN은 세계 도시화율이 2030년 60.4%, 2040년 64.5%, 2050년 68.4%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도시화율은 81%에 달한다.

셋째, 커먼즈를 공유화라는 실천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김자경, 2017; 윤여일, 2017; 정문수 외, 2017; 류석진 외, 2020; 박서현, 2021; 박윤혜 외, 2021). 연구자들은 커먼즈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커머닝이라고 했다(Linebaugh, 2012; Bollier, 2015; 정영신, 2017; 안수정, 2020). 커먼즈 실천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커먼즈가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공유화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만 공유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정석(2017)은 마을 만들기 연구에서 참여주체의 역할이나 인식을 다룬 정태적 연구는 많은 반면, 참여주체들 간 관계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동태적 연구의 부족함을 발견했다. 커먼즈 연구는 반대인 것이다. 커먼즈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동태적 연구(김자경, 2017; 윤여일, 2017; 정문수 외, 2017; 류석진 외, 2020; 박서현, 2021; 박윤혜 외, 2021)는 보이지만, 실천 주체로서 개별 공유인의 역할이나 인식을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공유인의 역할과 실천 동기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공동체 이론 고찰과 중추 공유인 선행연구 검토

공동체에 소속된 개별 공유인의 공유화를 통해 커먼즈가 발생한다. 공유화의 주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이론⁷⁾을 고찰하고 중추 공유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동체 이론은 Hillery(1955)의 구성 요인과 Pepper(1991)와 Taylor(1982)의 현대사회 공동체 특성을 고찰했다. Hillery(1955)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을 지리적인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로 꼽았다. Taylor(1982)는 현대사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했고, Pepper(1991)는 현대사회 마을 공동체 구성 요소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7) 이재민(2019)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단행본을 참고했다.

<표 3> Taylor와 Pepper의 현대사회 공동체 특성

연구자	공동체 특성
Taylor (1982)	현대사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된 가치와 신념 •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며 동시에 다면적, 복합적인 관계 • 호혜성의 실천
Pepper (1991)	현대사회 마을 공동체 구성 요소 여섯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 •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범위의 형성 • 일상생활 요소로서 한 가지 이상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구체적 활동 •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정의 사생활을 제외하고 다른 관계에 비해 우선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것 •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며, 공동체 내 이해 가능한 목적의 공동 관심 • 구성원들이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중추 공유인 관련 선행연구⁸⁾는 많지 않았다. 한혜정(2021)은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월산동 교육공동체 사례를 분석하고 중심 주체(키맨)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전영수(2019)는 사바에서 사례를 통해 지역 활성화 성공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키맨이 사업초기 인적자원의 핵심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였다. 신선화(2016)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 공공, 전문가, 시민 단체로 주체를 구분하고 주민을 중심 주체, 핵심 주체로 칭했다. 하지만 키맨이 어떻게 공동체 활동이나 지역 활성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화의 핵심 주체를 ‘중추 공유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8)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유인(commoner)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내 연구는 키맨, 핵심 주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선행연구를 검토했는데 이 또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추 공유인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더라도, 특정 공동체 연구 시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인터뷰 수행하는 것을 미루어볼 때 공동체 내 핵심 역할을 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빈곤밀집지역 쪽방촌 선행연구 검토

도시 내에서도 자원이 더욱 결핍한 빈곤밀집지역에서 커먼즈 발생을 살펴 보기 위해 빈곤밀집지역과 쪽방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빈곤밀집지역은 가난한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이영아, 2015)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판자촌, 달동네, 산동네 형태로 존재 했고 도시 재개발사업 이후에는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쪽방촌,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새로운 빈곤밀집현상이 나타났다(탁장한, 2020). 과거 빈곤층 주거지였던 판자촌, 비닐하우스촌 등은 집단적인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반면, 쪽방 등은 국소적인 지역에 모여 있다(이소정, 2006). 전국 쪽방촌 10개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는 쪽방과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PC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정책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 활동가의 지적⁹⁾이 있다. 실제로 쪽방상당소가 설치된 10개 지역 외에도 서울시(청량리, 용두동, 전농동), 제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에서 쪽방촌이 발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59). 빈곤층의 주거지가 해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연구·통계·정책의 부재 등 각종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이소정(2006)의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빈곤을 장소나 사회 환경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개인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Klinenberg, 2019)은 쪽방촌 연구(허소영, 2010; 황세인, 2015; 상종열, 2019; 최미경, 2019)에서도 발견된다. 탁장한(2020)은 기존 쪽방촌 연구에서는 빈민을 향한 병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소거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여전히 쪽방촌은 언론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서 ‘가난의 자극적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빈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해서 벌어서

9) 이동현, “홀리스에게 가혹한 ‘노숙인복지법’, 제발 바꿔주세요”, 《오마이뉴스》, 2022년 1월 31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4277

는 현상이다. 그런데 쪽방촌과 유사한 주거환경인 대부분의 비공식 정착지에서 도시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의 결핍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되더라도 사례 연구들은 비공식 정착지가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Aina, 1990; Gottdiener, 2013: 221). 빈자를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의해 정의하는(Negri, 2014: 21) 시도로서 연구가 필요하다.

쪽방촌의 공동체 혹은 사회적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 내부의 인간관계 비교 연구(탁장한, 2020), 저렴쪽방 디딤돌 하우스를 중심으로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연구(하춘 외, 2017), 쪽방 주민의 생활과 주민관계에 관한 연구(이현옥 외, 2013)가 있다. 이 연구들은 쪽방촌 내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를 기술하지만, 공동체가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또한 쪽방촌이 지닌 가능성과 가치, 의미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하춘 외(2017)는 ‘공용공간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주민들 내에 불신을 허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쪽방 거주민 사이에 ‘관계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택진(2020)은 쪽방촌 주민의 주민들이 덧보태 온 돌봄, 사회적 관계, 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주민들 간 사회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관계가 매우 취약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기술했다.

4) 분석틀과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자원, 공동체, 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요소 간 상호관계성을 보이는 것을 커먼즈로 정의하고 기존 커먼즈 사례의 패턴을 정리한 분석틀을 마련했다. 이 분석틀을 토대로 돈의동 쪽방촌 현장을 분석하여 커먼즈 존재 유무와 커먼즈 형성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도시를 대상지로 한다. 커먼

즈 형성 이론을 고찰한 결과,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는 다수 발견되지만 도시 커먼즈 사례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사유화된 도시가 지닌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도시화율이 81%라는 점에서 다양한 도시 커먼즈의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자원이 결핍한 빈곤밀집지역 쪽방촌에서 도시 커먼즈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원이 결핍한 지역에서 커먼즈 형성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커먼즈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유화라는 실천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는 반면 공유화 주체로서 공유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커먼즈를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분명한 사실이기에 공유인의 역할과 참여 동기를 다룬 연구는 커먼즈 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에스노그래피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에스노그래피는 민속지, 문화기술지, 민족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이용숙 외, 2012: 17) 주로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며 현장 연구를 밀도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도시계획 사상이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는 도시 연구에서 지역 조사를 강조하며 도서관과 강의실을 떠나 직접 관찰법이 필요하다(Geddes, 1915: 314)고 말했다. 지역의 특성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와 사진기를 활용하여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안영진, 2006: 366). 도시 연구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도 노인 생활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Spladley, 2006)했다. 현대 도시에서는 같은 도시 지역 내일지라도 공간적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동일한 도시에 속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 혹은 지역에 기반한 도시 연구가 필요

하다. 에스노그래피적 지식은 장소에 기반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적·문화적 차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Mattilda et al., 2021) 때문에 도시 연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1)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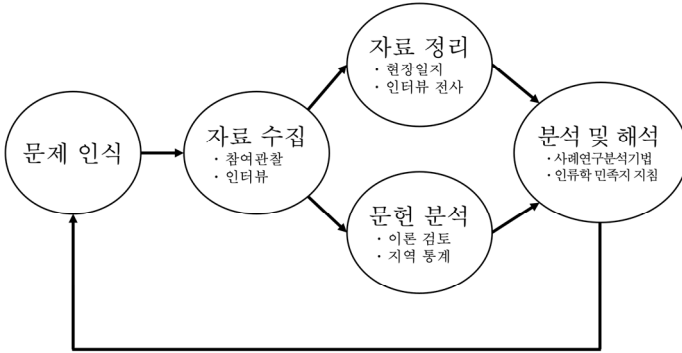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에스노그래피 연구자는 현장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 생각(이용숙 외, 2012: 14)한다. 이 연구는 에스노그래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9회 방문(쪽방촌 18회, 서울시청 1회)하며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에스노그래피 연구에서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은 특정한 단계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동시에 오가며 수행한다(Coffey, 2018: 78). 연구 초기에 현장 답사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쪽방촌 식생활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주민협동회의 자조(自助)와 돌봄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참여관찰,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참여 관찰 결과는 현장 일지로 정리하고 인터뷰 녹음 파일은 전자했다. 동시에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을 고찰했다. 이후 현장일지와 인터뷰 자료는 사례연구 분석 기법과 인류학 민족지 분석의 일반적 지침을 따라 분석했다. 이 과정을 반복했다.

에스노그래피 연구의 핵심 특성 중 하나는 연구 환경에서 사회적 행위자와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는 역량이다(Coffey, 2018: 39). 사회적 행위자와의 라포가 없이는 애당초 수집조차 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도 많이 존재(이용숙 외, 2012: 34)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해당 지역 ‘게이트 키퍼(gatekeeper)¹⁰⁾’인

10)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사회적 사건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디어 기업 내부의 각 부문에서 취사선택하고 검열하는 직책 또는 그런 기능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와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가능케 했던 구성원

<그림 1> 연구 절차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최OO 간사(최 간사)의 도움¹¹⁾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 조사 방법과 대상

참여관찰은 연구 대상의 영역 안으로 연구자가 들어가 가급적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자의 관찰과 기록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최태현, 2021: 183)이다. 참여관찰은 에스노그래피 연구의 초석으로 표현되는데, 참여관찰을 통해 에스노그래피 연구자는 ‘거기에 존재(being there)’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한다(Daynes, 2018: 113).

이 연구의 참여관찰 대상은 돈의동 쪽방촌 지역과 주민이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참여관찰은 수동적

(Coffey, 2018: 129)을 뜻한다.

11) 이 연구를 사례 연구(case study)가 아닌 현장 연구(field study)라고 명한 이유다. 관찰 대상인 현장(field)의 관점에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에스노그래피는 내부자 관점을 발견하는 연구인데 이는 외부자 관점에 기초한 대부분의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Spradley, 2006)이기 때문이다.

<표 4> 현장 참여관찰 및 인터뷰 수행 일지

회차	일자	장소	조사 유형	인터뷰 대상
1	21.06.01.	돈의동	참여 관찰	
2	21.06.02.	돈의동	참여 관찰	
3	21.07.20.	돈의동	참여 관찰	
4	21.07.30.	돈의동	파일럿 인터뷰	최 모 씨
5	21.08.03.	종로2가	무료 급식소 참여 관찰 및 파일럿 인터뷰	김 모 씨
		돈의동	참여 관찰 및 파일럿 인터뷰	편 모 씨
6	21.08.10.	돈의동	마을식당 참여 관찰 및 파일럿 인터뷰	이 모 씨
7	21.09.24.	돈의동	인터뷰	김 모 씨
8	21.09.28.	돈의동	참여 관찰	
9	21.10.12.	돈의동	마을식당 참여 관찰	
10	21.10.21.	돈의동	마을식당 참여 관찰	
11	21.10.22.	돈의동	마을식당 참여 관찰	
12	21.11.30.	돈의동	마을식당 참여 관찰	
13	21.12.02.	서울시청	코로나 19 긴급기자회견 참여 관찰	
14	22.02.21.	돈의동	인터뷰	최 모 씨
15	22.04.12.	돈의동	인터뷰	박·오·임·이 모 씨
16	22.05.02.	돈의동	인터뷰	김·주 모 씨
17	22.05.20.	돈의동	참여 관찰 및 인터뷰	최·김 모 씨
18	22.08.03.	돈의동	인터뷰	남 모 씨
19	22.10.17.	돈의동	참여 관찰 및 인터뷰	황·최 모 씨

참여¹²⁾를 취했고 관찰 거점은 마을식당이다. 때때로 마을 식당 봉사 활동과 고물 운반 활동도 함께 수행하며 적극적인 참여 수준을 취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사회과학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식으

12) Spradley(2006)은 연구자의 참여의 정도에 따라 완전한 참여, 적극적인 참여, 중간 정도의 참여, 수동적 참여, 비참여의 5단계로 구분했는데(황세인, 2015), 수동적 참여는 현장에 있되 사람들과 깊이 관련을 맺거나 참여하지는 않는다. 수동적 참여는 관찰하고 기록할 ‘관찰 거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 5> 조사 방법과 대상

구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참여 관찰	소극적인 참여 수준의 참여 관찰	돈의동 쪽방촌 지역과 주민
파일럿 인터뷰	비구조화된 질문	무료급식소, 쪽방상담소
인터뷰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인터뷰 수행	주민협동회 임원과 일반 회원, 비회원 쪽방 주민

<표 6> 인터뷰 대상

구분	거주 유무(기간)	주민협동회 가입 여부	마을식당 이용 여부	비고
최 모 씨	X	O	O	주민협동회
김 모 씨	X	X	X	무료급식소
이 모 씨	X	X	X	쪽방상담소
편 모 씨	O	X	X	쪽방촌 근무
박 모 씨	O (10개월)	O	O	주민협동회
오 모 씨	O (7년)	O	O	주민협동회
임 모 씨	X	X	X	쪽방촌 근무
이 모 씨	X	O	O	주민협동회
김 모 씨	O (5년)	O	O	주민협동회
주 모 씨	O (7년)	X	O	주민협동회
남 모 씨	O (63년)	X	O	쪽방 주인
최 모 씨	O (12년)	O	X	주민협동회
황 모 씨	O (1년)	O	X	주민협동회

로서 인터뷰를 말한다(Patton, 2002). 주로 한 집단의 일상문화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데 다른 연구방법으로 연구하기 힘든 풍부하고 생생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혜란, 2007).

돈의동 쪽방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마을식당 운영 실태와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돈의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지 않더라도 쪽방촌이 근무 장소인 방문 빈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무료급식소와 쪽방시립상담소 파일럿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수행했다. 주민협동회와 쪽방 주민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수행했다. 반구조화

된 질문은 현장이나 인터뷰 대상에 따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했다. 의도적 표집방법은 연구목적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3) 분석 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커먼즈 형성에 관한 분석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문헌, 현장일지와 인터뷰를 분석하고 해석했다. 자료 분석과 해석은 사례연구 분석기법을 적용했고 인류학 민족지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지침(이용숙 외, 2012)을 따랐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사례연구 분석기법은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설명하기, 시계열분석이다. 첫째, 패턴매칭은 자료 수집 전에 예측했던 패턴과 실제 나타난 패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Trochim, 1989; Yin, 201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 커먼즈 형성 패턴과 실제 돈의동 현장에서 나타난 패턴을 비교했다. 돈의동 마을식당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다. 둘째, 설명하기는 현상에 대해서 예측하였던 인과적 순서가 실제로도 그러한가를 밝히거나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했는가를 밝히는 것(Yin, 2018)이다. 셋째, 시계열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 가능한 대상을 측정하는 것(Yin, 2018)이다.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활동 연혁과 마을식당의 형성 과정을 주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추적했다.

사례연구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인류학 민족지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지침을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했는데,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현장노트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다.
2.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를 찾아본다.
3.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4. 주요 사건이나 사례를 분석한다.
5. 사건이나 패턴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해 본다.
6. 현장노트와 현장일지 이외의 자료도 해석하고 분석한다.

4. 돈의동 쪽방촌 현장 배경

1) 쪽방촌 환경

이 연구에서 대상지를 빈곤밀집지역 중 쪽방촌을 선정한 이유는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등은 거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쪽방은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¹³⁾ 이로 인해 지역 내 공동체 형성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쪽방촌 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55.7%)은 전국(12.8%) 대비 19.9배 높고 65세 홀몸 노인 비율(36.4%)은 전국(12.8%) 대비 2.8배 높다¹⁴⁾. 쪽방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 공간이며 별도 주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생활이다. 식생활 문제는 쪽방촌의 지역 내 공통의 문제로 꼽힌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식생활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이누리, 2017) 경제적인 요인이 식생활 문제를 야기(조자영, 2020)하기도 한다.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답사를 통해 주거 환경,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식생활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이 되지

13) 2021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인 주민이 29.3%, 5~15년(39.5%), 5년 미만인 30.3%로 조사되었다(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2022.08.29.,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9657911)).

14)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2022.08.29.,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9657911).

<표 7>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결과

구분		2019	2020	2021
기초	쪽방수(동/호)	309 / 3,960	301 / 3,621	284 / 3,567
	거주민 수	3,317	3,035	2,818
	평균 월세(만 원)	23.1	24.4	24.7
식생활	취사장 주택수(비율)	75(24.3%)	94(31.2%)	94(33.1%)
	쪽방 불편사항	취사(33.3%, 1위)	취사(24.2%, 2위)	취사(26.1%, 1위)

출처: 출처: 서울특별시, “2019~2020년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2021.07.14.,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80766904, 취하 후 메일로 전달받은 자료); 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시 쪽방촌 실태조사”, 2022.08.29.,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9657911).

않는 상태이며 지역 공동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현장 선정 배경

돈의동 쪽방촌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도시 공간 구조로 노후화된 쪽방이 밀집한 지역이다. 돈의동 쪽방촌의 공간적 환경은 역사와 관련이 깊다. 돈의동 쪽방촌은 원래 땔나무와 숲을 팔던 시탄시장이 있던 곳이었다(최준식, 2018). 1930년대 중반에 시장은 문을 닫게 되고 6·25 이후에 윤락가로 변한다. 1968년 당시 이곳은 ‘종삼(종로 3가)’으로 불렸다. 김현옥 시장의 ‘나비작전’으로 인해 종삼 윤락가는 폐쇄되었지만, 이후 1970년대에는 일용직 근로자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상태로 있다고 한다(손정목, 2010). 이처럼 외부로부터 배타적인 공간 특성¹⁵⁾은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지만 시민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지역¹⁶⁾이다.

15) 그것은 이 지역이 왕년에 성과 관계된 곳이라 그렇게 된 것 아닐까 한다. 원래 성과 관계된 곳은 은밀하고 주(主)공간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쪽방촌이 바로 그런 인간의 욕망에 맞게 디자인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은 윤락과는 전혀 관계없다(최준식, 2012).

16) 도시관리계획 상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지하철역 종로3가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하지

만면 이러한 공간 특성은 쪽방 주민들이 서로에게만 자주 노출되는 상황을 조성했다. 따라서 연구 환경으로서는 오히려 라포(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특별한 행사와 만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전답사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돈의동 쪽방촌을 연구 현장¹⁷⁾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쪽방촌 공동 문제로 지적되는 식생활 문제를 돈의동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대응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물리적인 인프라 때문에 식생활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 연구 대상지인 돈의동 쪽방촌에서는 도보로 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마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쪽방촌 내부에도 두 개의 슈퍼마켓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의동 쪽방촌 내에서 식생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쪽방시립상담소의 대응,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무료급식 혹은 무료도시락 제공, 주민협동회의 마을식당 운영이다.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첫 날이다. …… 상담소 앞에는 A사에서 기부한 물품을 가득 실은 1톤 트럭이 도착한 상황이었다. 시립상담소 직원들과 마을집사 흥반장들이 기부한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다. …… 박스 안에는 양말, 샴푸, 여름용 이불, 과일이 포장된 채로 들어 있었다. _ 2021년 6월 1일 현장일지

첫째, 지자체 대응을 통해 돈의동의 식생활 문제가 지역 내 심각한 문제라

만 쪽방촌 내 상가는 작은 슈퍼 두 개와 약국 하나뿐이어서 외부인의 유입이 거의 없다.

- 17) 이 연구를 사례 연구(case study)가 아닌 현장 연구(field study)라고 명한 이유는 관찰 대상인 현장(field)에서 내부자적 관점으로 분석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퍼 최 각사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현실적으로 연구는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는 것을 재확인된다. “돈의동 새뜰마을 관리·운영현황 및 활동 내역”¹⁸⁾에 보면 기초생활 지원 항목에는 쌀과 밀반찬을 지원하는 급식 지원과 영양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에서는 돈의동에서 2015년부터 4년 동안 희망밥상 요리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새뜰집’을 개관했는데 5층에는 새뜰 주방(공동주방)이 조성되어 음식 조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희망밥상 요리 교실 등 식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둘째, 쪽방지역 내 무료급식소 활동도 식생활 문제를 확인시켜주는 활동(김수현 외, 2002: 61)이다. 도보 5분 내 거리에 세 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돈의동 쪽방을 방문하여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급식소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매주 김밥을 배달하기도 했다.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 메뉴는 묵밥. 삶은 계란 껍데기를 까고 야채를 식기에 담는 일을 도왔다. 코로나로 인해 내부에서 식사가 안 되었다. 탑골공원 입구에서 도시락을 배부했다. 무료도시락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계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탑골공원에 가서 약 300명의 사람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_ 2021년 8월 3일 현장일지

전국천사무료급식소는 배식 봉사도 하지만,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한다. …… 봉사자 혹은 직원으로 보이는 두 명의 사람이 명단을 확인하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다. …… 인사를 건네고 매주 오시는지 여쭙봤다. 일주일에 두 번 온다고 대답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 날이다. _ 2021년 10월 2일 현장일지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돈의동 새뜰마을 관리·운영현황 및 활동 내역”, 2021.08.20.,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8129246).

하지만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응이 동의동 주민의 식생활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웠다. 상담소 내에 설치된 주방은 설립 당시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무료급식소는 동의동 주민 수 540명¹⁹⁾에 비해 이용자 수가 낮은 편이다.

취지는 좋아요. …… 새뜰마을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금 현재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좀 유명무실해요. _ 2021년 8월 10일 동의동쪽방시립상담소 소속 직원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_ 2021년 8월 10일 동의동쪽방시립상담소 소속 직원

사무국장님에게 동의동 쪽방촌 주민들이 무료급식소에 오는지 물어봤다. 사무국장님은 쪽방에서 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경험상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저를 안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대략 15명 정도 된다고 답했다. _ 2021년 8월 3일 현장일지

마지막으로 동의동 쪽방촌 내부를 한 번만 돌아봐도 동의동 내에 주민협동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협동회는 동의동사랑방을 운영한다. 주민협동회 활동은 크게 출자금 기반 대출제도, 마을식당, 마을 돌봄, 무연고 장례 활동으로 구분된다. 그중 매일²⁰⁾ 운영하는 마을식당 활동은 식생활 문제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이다. 이 연구는 동의동 쪽방촌을 연구 현장으로 삼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쪽방촌의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이다.

19) 서울특별시, “2021년 동의동 쪽방촌 실태조사”, 2022.11.14., 정보공개 청구 자료(접수번호 10041075).

20)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매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에는 321일, 2021년에는 300일 운영했다.

5.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 분석 결과

1) 도시 커먼즈 형성 요소 분석

(1) 공동체

도시 커먼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실천 도구이자 과정이 되는 커먼즈로서 자원, 공동체, 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각 요소 간 실천을 내재한 상호 관계성이 관찰되어야만 한다.

첫째,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빈곤밀집지역에 형성된 공동체다. 정관에 따르면 돈의동 주민협동회 소재(所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Hillery(1955)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지리적인 영역을 꼽았다. Pepper(1991)는 현대사회 공동체 구성하는 요소로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범위를 형성한다는 특성을 제시했다. 주민협동회는 종로구 돈의동이라는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일정한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돈의동 주민협동회 구성은 “주민협동회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라고 밝히며 회원자격은 출자한 회원과 마을식당과 반찬 나눔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자 회원이다. 출자금을 내는 주민은 210명인데 이는 돈의동 주민의 39% 정도에 해당한다.²¹⁾ 주민협동회 정관의 회원자격 및 구분에서 명시하였듯 마을식당은 주민협동회의 주요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Pepper(1991)는 공동체 구성 요소로 여섯 가지 특성을 언급했는데, 마을식당 활동은 ‘일상생활 요소로서 한 가지 이상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구체적 활동’이자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Pepper, 1991)가 드러나는 활동이다.

21) 출자금을 내는 회원 수는 2021년 7월 30일 최 간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고, 주민 수는 2021년 서울시 돈의동 쪽방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540명으로 확인된다.

주민협동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마을식당은 무보수 봉사로 운영된다. 주민협동회 대표가 음식 조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조리 외에 배식과 설거지는 월마다 자원한 주민협동회 회원이 담당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돕는 ‘자조’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외부 단체나 천주교 학사들이 봉사하기도 한다. 박인권 외(2019)의 경의선공유지 사례처럼 배타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자금을 내야만 주민협동회로 활동할 수 있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 외부인도 활동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인다.

쪽방촌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쪽방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돈의동 주민협동회도 매달 신규 회원과 탈퇴 회원이 존재한다. 구성원이 마을식당 활동에 저마다 다른 강도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쪽방촌 마을식당에 방문하면 자주 보는 회원들도 있는 반면 거동이 불편해서 쪽방에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회원, 생계 활동으로 인해 보기 어려운 회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Pepper(1991)는 현대사회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낮은 진입 장벽을 형성 특성을 구성 요소로 제시했는데 돈의동 주민협동회에서도 자율적 의지가 반영된 공동체 특성이 발견된다.

(2) 자원

돈의동 마을식당은 도시 커먼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원이 발견된다.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가 자원을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듯 돈의동 마을식당은 운영을 위한 재정과 공간이라는 자원이 도시 커먼즈 요소로 발견된다.

첫째, 정관에 따르면 후원금, 수익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기타 수입을 재정으로 한다. 수입 재정은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비물리적 자원이다.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는 천연자원이 주요 자원이지만, 도시 커먼즈는 재정 자원이 주요 자원이다. 도시에서 재정은 스스로 확보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해야 한다. 돈의동 마을식당 재원은 외부 후원금, 주민 후원금이다. 식료품은 재정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마을식당은 식료품과 같은 물품을 후원

받기도 한다. 시립쪽방상담소에서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식료품을 마을식당에 후원하는 주민도 있고 외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식재료나 재정을 후원받기도 한다.

둘째, 마을식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돈의동사랑방(주소: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9가길 10)은 물리적 자원이다. 마을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3) 규약

커먼즈는 자원을 넘어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 통합되고 상호연관된 전체(정남영, 2015; Bollier, 2015)로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규약(혹은 제도)을 커먼즈의 주요 요소로 꼽는다(Bollier, 2015; Bauwen, 2017; 윤여일, 2017; 박인권, 2019; Feinberg et al., 2021).

주민협동회 규약은 정관을 기초로 월간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식당 운영 규칙 등을 결정된다. 주민협동회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과 운영, 제4장 재정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장에는 회원자격과 권리, 의무, 탈퇴, 상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 고문과 자문위원, 후원회, 사무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4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2월 16일에 제정되어 2020년 2월 13일 한 차례 개정되었다. 정관에는 매년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코로나 문제로 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총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한다. 주간 주민회의를 통해 시급한 사안을 다룬다.

총회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식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자치적으로 만든 주민협동회 규약으로 존재한다. 이는 커먼즈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공동체가 커먼즈를 관리하고 실천하는(박인권, 2019; 이승원, 2019; 이광석 외, 2020) 과정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요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지금 시스템 있잖아요. 밥을 바깥에서 내놓고 퍼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방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 나왔는데. …… 그것들이 실제로 구동하는 데는 주민 헌신이 있었던 거죠. _ 2021년 8월 2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첫째, 코로나 당시 마을식당 운영에 관한 결정은 사건이다. 커먼즈는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천에 추상적인 재화나 자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문화적 차원을 지니는데(정영신, 2017), 주민협동회 규약에는 커먼즈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실천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민협동회 규약을 국가나 사기업의 소유권 대신 시민 사회적 구상 속에서 시민 자신이 도시 자원을 공동 생산해 관리하는 일종의 시민 코뮌적 자치로서 커먼즈(이광석, 2020)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마을식당 후원금을 천 원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마을식당 활동은 본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반찬 나눔 사업이 발전된 사업이다. 반찬 나눔 사업은 무료로 반찬을 나누는 사업이었다. 마을식당 활동도 무료로 운영되다가 2020년 11월 23일부터 후원금 천 원을 내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협동회 회원들은 천 원을 내는 규약을 만든 것이다.

내가 여기(마을식당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천 원을 냈으로써 활동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닌다. 봉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성의로 천 원을 낸다. (활동을) 모르는 주민도 처음에는 ‘천 원, 싸네?’ 하다가 가치와 활동에 동의하면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천 원을 낸다. _ 2021년 7월 30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4) 상호 관계성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은 재정과 공간(자원), 주민협동회(공동체), 주민협동회가 만들어낸 규약(제도)으로 구성된 도시 커먼즈다.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자원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고 감소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유자원(Ostrom, 2010) 특성 때문에 경합성을 지닌다. 하지만 마을식당은 빈곤밀집지역에서는 열악한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활동의 공간으로서 활용된다. 자원을 규약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돕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경합이 발생시키는 갈등을 방지하고 위험성을 예방한다.

돈의동 마을식당은 공유화가 반영된 참여(Linebaugh, 2012)와 공동으로 누리는 것으로서 커먼즈(Aguiton, 2018: 90)다. 마을식당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주민협동회 내부에서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 관찰을 통해 마을식당이 조리 및 총괄, 배식, 행정 관리로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 약 30명 정도다. 쪽방촌 주민의 5%를 넘는 정도이며 회원 기준으로는 15% 정도 된다. 마을식당은 매일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쪽방 주민들은 마을식당을 중심으로 대면하고 소통한다. 이는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범위를 더욱 좁혀 대면 횟수를 증가하도록 직접적인 대면 관계 범위를 좁히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활동은 쪽방촌 주민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을식당은 무료로 배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마을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천 원을 지불해야만 한다. 동자동 쪽방촌 식도락 사업에서도 천 원의 밥값을 지불하는데 정택진(2020)은 이를 ‘식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자신이 받은 것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노력으로 공헌하고 돈을 내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의 가치에 동조하는 거예요. _ 2022년 5월 19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Taylor, 1982)으로 천 원이라는 후

원금 제도를 만들고 공유인들이 내는 후원금은 재정 자원이 된다. 돈의동 마을식당에서도 천 원을 ‘싼 밥값’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봉사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활동에 일조하는 행위으로써 ‘후원’이자 ‘공헌’이라고 설명했다. 돈의동 마을식당 활동은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구체적인 활동(Pepper, 1991)인 것이다.

저희는 무료 급식 아니에요. 저희는 주민들이 식대를 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복지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_ 2021년 8월 2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무료급식과 같은 활동은 보통 빈자를 위한 음식 제공으로 이해되지만 이와 달리 마을식당 활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주민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활동(Negri, 2014: 19)으로 이해할 수 있다. Negri(2014: 19)는 “상품 생산은 종종 주체를 위한 객체(대상)의 생산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삶정치적 생산의 궁극적 핵심은 주체성 자체의 생산”이라고 말했다. 마을식당 활동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가 규약을 통해 마을식당 자원을 운영하며 주체성을 회복하는 활동이다.

이 당사자의 문제들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풀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성공의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_ 2021년 8월 2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결과적으로 돈의동 마을식당은 빈곤밀집지역에 형성된 도시 커먼즈다. 도시민들의 연대로 형성하는 공간(안수정, 2020)이자 자원과 서비스가 결합(조성찬, 2022)된 도시 커먼즈이며 도시민의 실천과 행위 산물(홍덕화, 2018; 박인권 외, 2019; 이승원, 2019; 안수정, 2020; 홍지은, 2022)이자 자원, 공동체, 규약이 통합되고 상호 연관된 전체인 커먼즈다.

2) 도시 커먼즈 형성 요인 도출

(1) 지역 공동 문제

주민협동회는 정관에도 명시했듯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성된 공동체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2019년 총회 자료에 보면, 마을식당 활동은 반찬 나눔 사업이 발전한 활동이다. 반찬 나눔 사업은 돈의동 주민들의 취약한 식생활 개선과 조리 화재를 줄이기 위해 2016년을 시작으로 반찬 및 부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성된 공동체이며, 지역 공동 문제 중 식생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식당 활동을 도시 커먼즈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존 커먼즈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먼즈(김자경, 2017; 윤여일, 2017; 이희환, 2017; 이해리, 2019; 류석진 외, 2020; 박윤희 외, 2021)가 형성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최 간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재확인된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마을식당을 보면은 다 이걸 복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가 아니고요. 주민 활동이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_ 2022년 5월 19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마을식당은 단순히 요리하고 음식을 먹는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 공통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통적 유대감을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Hillery, 1955)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다. 돈의동의 지리적 특성은 대면 횡수를 늘리게 되고 돌봄 활동을 촉진했다. 돈의동 쪽방촌에 위치한 방들이 마을식당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배식 활동이 가능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협동회는 돌봄 사업(요양서비스)으로 활동을 확장하기도 했다.

<표 8> 지역 공동 문제 중심으로 형성된 주민협동회의 활동 연혁

연도	구분	식생활 관련 활동 연혁	이외 주요 활동 연혁
2016	준비	• 토요밥상(06.11)	• 사랑방 개소(06.07) • 임시주민회 구성, 주민활동계획 수립(06.11) • 주민활동평가워크숍(12.10)
2017	형성	• 반찬 나눔 사업(03.25)	• 주민협동회 1기 출범(03.25~26) • 여름주민단합대회(07.22~23)
2018	성장	• 사업 담당자 2명 지정	• 주민협동회 2기 출범(06.13) • 주민활동평가워크숍(12.08~09)
2019		• 반찬 나눔 사업	• 총회 실시(02.16)
2020~ 2022		• 마을식당 운영 시작 (천 원 후원금)	• 출자금 기반 대출제도, 마을돌봄지원 • 무연고장례지원 • 주민협동회 소식지 제작(20.06.30) • 자치쪽방 ‘협동의집’ 운영(22.01.02.)

주: 해당 자료는 2019년도 주민협동회 총회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 2019년 이후로는 정리된 활동이 없어서 소식지(2020년 6월 이후 발행)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박 모 씨 집에 찾아가 복숭아를 전달했고 마을식당 배식 활동을 진행했다. _ 2021년 9월 28일 현장일지

마을식당이 필요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_ 2022년 5월 2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주 모 씨 인터뷰

주 모 씨도 마을식당 활동의 돌봄 활동에 주목했다. 주 모 씨는 현재는 출자금을 내진 않지만 마을식당 배식 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장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지, 보람이 있지.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 지나는 것보다는. _ 2022년 10월 17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황 모 씨 인터뷰

황 모 씨는 10월 17일 두 개의 장례 때문에 마을식당에 상주하는 대표가 자

리를 비우자 12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유 모 씨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사랑방으로 나섰다. 황 모 씨는 본인이 마을식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돌봄 활동을 통해 ‘보람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불만도 줄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나까 불만이 줄어들어요. _ 2021년 7월 30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최 간사는 복지 사업이 아닌 주민 활동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말했지만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맛과 위생 등 서비스를 문제 삼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해서 마을식당을 주 5~6회 정도 이용하는 오 모 씨는 마을식당이 식생활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답했지만 오 모 씨의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인 임 모 씨는 마을식당의 맛과 위생 등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마을식당을 이용하는 오 모 씨 입장에서는 마을식당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임 모 씨는 외부인으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음식을) 못해먹는 사람한테는 고맙지, 매일 하나까 _ 2022년 4월 12일 돈의동 주민

협동회 오 모 씨 인터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고 반찬을 그냥 막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야 _ 2022년 4월 12일 돈의동 재가요양보호사 임 모 씨 인터뷰

서비스를 비롯한 마을식당의 기능적 측면은 돈의동 마을식당 커먼즈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마을식당 활동을 지역 공동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규약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커먼즈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당면한 과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을식당을 이용하지 않지만 마을식당

활동을 지속하는 주민 남 모 씨의 사례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식의 질, 그리고 위생. 또 하나는 좀 편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 사실은 이게(위생, 맛) 중요해요. 솔직히 위생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다른 사람(주민협동회 회원)하고 얘기를 해요. **_ 2022년 5월 19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자기 효능감을 여기서 느끼는 거지. …… 밥을 짓는 사람도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공헌을 하는 거고 네 그걸 먹는 사람도 자기가 천 원을 내면서 여기에 공헌을 하는 거예요. 천 원이라는 게 내는 사람과 그걸 받는 사람이 모두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_ 2022년 5월 19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주민협동회 최 간사는 서비스보다 마을식당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누리는 “자기 효능감”과 “공헌 의식”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돈의동 마을식당이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적 가치보다 공동체의 주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추구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Bollier(2015: 192)는 공유인에게 궁극의 목적은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욕구와 생태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을식당은 공동체의 공유인으로서 공유화라는 주체적인 실천 과정을 커먼즈의 수혜자로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고 공동체가 돌볼 때만이 커먼즈의 지속성이 보장된다(Aguiton, 2015:105)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커먼즈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간에는 형성 과정에서 차이점을 발견했다. 농산어촌 소재지에서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수자원(홍성만 외, 2004; 김선희, 2018), 어자원(우양호, 2008; 김연상 외, 2022), 목장(최현 외, 2016), 삼림자원(윤순진 외, 2009; 정영신, 2017; 한상진, 2018) 등 천연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먼즈를 형성했다. 반면 도시 커먼즈는 사유

<표 9>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와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 과정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천연자원 → 공동체 → 공유화	지역 공동 문제 → 공동체 (실천) → 서비스자원

화된 도시가 일으키는 문제의 대안으로의 접근 과정에서 공동체가 조직되면서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커먼즈가 형성되었다(이희환, 2017; 이해리, 2019; 류석진 외, 2020; 박윤혜 외, 2021). 이와 같이 동의동 주민협동회가 운영하는 마을식당도 빈곤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식생활이라는 공동 문제의 대안으로 형성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추 공유인

동의동 마을식당 현장 사례를 통해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내 중추 공유인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커먼즈 세 가지 요소(자원, 공동체, 규약) 중 초기 커먼즈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 커먼즈에서는 천연자원의 존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딘은 자원의 경합성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에 주목했고 오스트롬은 시민의 공동협력으로 공유지 자치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커먼즈 형성에 자원이 주요한 구성 요소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자원은 대부분 사유화되어 있고 사유화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공유화가 쉽지는 않다. 양적으로는 국내 국유지 비율은 23%이며 그중 65% 이상이 임야라는 점(정기황, 2021: 52)과 제도적으로는 국유지가 공유지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²²⁾에서 공유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커먼즈 요소 중 자원이 아닌 공동체의 공유화 관점에서 커먼즈에 접근한다면 도시 내에

22) 정기황(2021)은 “공유지를 확보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표 10>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연도별 인원과 직책별 명단

연도	구분	기수	인원	직책별 명단
2016	준비	임시주민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고00, • 방장: 김00, 김00, 한00, 권00 • 활동가: 이00, 박00, 최00, 최00
2017	형성	주민협동회 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10명 • 반찬 나눔 회원 2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고00 • 감사: 노00 • 총무: 김00 • 사업이사: 한00 • 홍보이사: 김00 • 상근활동가: 최00
2018	성장	주민협동회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33명 • 반찬 나눔 회원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임00 • 감사: 노00 • 총무: 김00 • 간사: 최00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찬, 상담, 출자 사업담당자 각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00 • 총괄이사: 임00 • 홍보이사: 박00 • 이사: 김00, 박00 • 간사: 최00
2020	안정	주민협동회 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1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00 • 총괄이사: 임00 • 홍보이사: 박00 • 이사: 김00, 박00 • 간사: 최00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2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김00 • 총괄이사: 임00 • 홍보이사: 박00 • 이사: 김00, 박00 • 간사: 최00

주: 해당 자료는 2019년도 주민협동회 총회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 2019년 이후로는 정리된 활동이 없어서 소식지(2020년 6월 이후) 자료를 참고했다.

서 커먼즈 발생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수 있고 자주 발견될 수 있다.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마을식당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형성한 커먼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시작한 활동은 아니었다. 공유된 가치와 신념(Taylor, 1982)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주민협동회가 형성된 201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표 10>에서 2017~2019년에 조합원과 반찬 나눔 회원은 증가하지만 직책을 맡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구자가 참여관찰

<표 11> 공통 질문에 관한 인터뷰 요약

대상	1	2	3
박 모 씨	매일	맛	대표
오 모 씨	5-6회/주	맛	대표
임 모 씨	이용안함	위생	—
이 모 씨	5-6회/주	안정성	대표, 간사
김 모 씨	매일	안정성	—
주 모 씨	매일	예산	대표
최 모 씨	이용안함	위생	대표, 간사, 본인
황 모 씨	이용안함	위생	대표

1: 마을식당을 일주일에 몇 회 이용하시나요?

2: 마을식당 운영/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마을식당 운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을 진행하던 2021, 2022년에도 마을식당 활동은 조합원 수에 비해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을식당 이용자들의 인터뷰에서는 주민협동회 간사와 대표가 마을식당 커먼즈의 중추 공유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를 보면 ‘마을식당 운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표와 간사로 꼽았기 때문이다.

빈곤밀집지역에서 마을식당 도시 커먼즈는 중추 공유인의 신념과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중추 공유인의 활동은 빈곤밀집지역에서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발견된다. 최 간사는 상근활동가를 역임하며 마을식당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마을식당 운영을 시작하는 데 토대가 되었고 2019년 김 모 씨가 주민협동회 대표를 역임하면서 마을식당은 정기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간사님이 그렇게 그 삼겹살을 하고(굽고) 김치전 하고 먹고 하면서. _ 2022년 5월 2

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김 대표

<표 12> 반찬 나눔 사업과 마을식당 운영 연혁과 중추 공유인의 참여 과정

연도	구분	반찬 나눔 사업과 마을식당 운영 연혁	중추 공유인 참여 과정	
			김 대표	최 간사
2015	—	—	—	• 새뜰마을사업 PM 참여
2016	준비	• 토요밥상 운영	—	• 활동가로 역임 • 주민조직가 기초 과정 23기 수료
2017	형성	• 반찬 나눔 사업 • 반찬 나눔 회원 29명	• 쪽방 거주 시작(11.04.)	• 상근활동가 역임(11.01)
2018	성장	• 반찬 나눔 사업 • 반찬 나눔 회원 50명	• 인근 경로당 식당 근무	• 상근활동가 • 반찬 나눔 사업, 조합원 모집
2019			• 주민협동회 대표 역임 • 마을식당 운영 총괄	• 상근활동가 • 주민조직가 중견 과정 26기 수료 • 마을식당, 조합원 모집
2020	안정	• 마을식당 운영 321일 • 하루 평균 42명 이용 • 마을식당 운영 300일 • 하루 평균 30명 이용	• 주민협동회 대표 활동 • 마을식당 운영 총괄	• 상근활동가 • 마을식당, 조합, 돌봄 사업(요양) 운영
2021			• 주민협동회 대표 활동 • 마을식당 운영 총괄 • 주민지도자 과정 20기 수료	• 상근활동가 • 마을식당, 조합, 돌봄 사업(요양), 협동집 운영

주: 해당 자료는 2019년도 주민협동회 총회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 2019년 이후로는 정리된 활동이 없어서 소식지(2020년 6월 이후) 자료를 참고했다.

처음에 마을식당은 나랑 OO 형이랑 했거든요. 실제로 주도는 제가 했어요. …… 문제를 풀어가는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동력이 없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_ 2022년 5월 19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 활동은 마을 골목에서 삼겹살을 굽고 김치전을 부친 최 간사의 활동에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활동가로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재생 사업(새뜰마을사업) 진행됐었을 때 그 때 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왔어요. PM으로. …… 재생을 하시는데 너무 건축가스럽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리적 환경 개선만 하시는 거야.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

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PM) 그만둬야겠다. 활동가로 일을 해보자”라고 딱 결심하면서 아는 활동가분들한테 연락해서 …… 그분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_ 2021년 7월 30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최 간사 인터뷰

최 간사는 2015년 PM으로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을 알게 되었다. 이후 최 간사는 돈의동 주민운동을 조직하겠다고 결심했고 이때 최 간사는 돈의동 외부 사람과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다른 활동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하 코넷)을 소개를 받았다. 코넷에서 진행하는 ‘23기 주민조직가 기초 과정(2016년)’과 ‘26기 주민조직가 중견 과정(2019년)’ 교육훈련을 수료하면서 돈의동 주민협동회 활동을 지속했다.

쪽방 내부에서 최 간사의 활동에 반응한 주민이 2020년부터 주민협동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모 씨다. 김 대표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쪽방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인근 경로당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후 쪽방촌 내에서 최 간사를 만나게 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주민협동회 대표를 맡게 되면서 마을식당 운영과 조리를 총괄한다.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면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최 간사의 환대로 인해 김 대표는 주민협동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매달 모집된 주민봉사자는 김 대표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재료를 손질하거나 운반하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배식하는 데에 봉사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보통 점심 한 끼를 운영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 저녁식사도 제공한다.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코넷 ‘20기 주민조직가 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하기도 했다.

김치전 해서 간사가 이리 보더니 젓가락을 들고 “좀 잡숯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은 5천 원짜리 하나 얼른 손에 집히더라고. 집히는 대로 주고 다 먹고 이제 갔어. ……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야. …… “이모 우리 놀러 가는데.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나는 할 일이 없잖아. ……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강화도 간대. …… 그래서 이제

내가 간사한테 10만 원을 줬지. 기름 값이나 하시라고. _ 2022년 5월 2일 돈의동 주민협
동회 김 대표 인터뷰

이제 또 00이가 이른다. “이모, 이모 우리 놀러 가는데” “어디 가는데” 운동회 간
대. “그런 데서도 운동회 하나” 하니까 …… 아니 사람들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
…… 이제 월이 그거 한 개 1,400원 하거든. 우리 숫자가 9명이더라고. 10개를 샀지.
놀이공원 들어가면서 그거 한 개씩 돌려서 먹고. (2019년) 10월 9일이 운동회거든. _
2022년 5월 2일 돈의동 주민협동회 김 대표 인터뷰

김 대표는 김치전을 먹었던 날에도 강화도에 놀러 가는 날에도 받기만 하지
않았다. 돈의동 마을식당 커먼즈 형성 초기에 최 간사의 활동에 김 대표는 공
동체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²³⁾ 중 하나인 ‘호혜성의 실천(작용)’(Taylor, 1982)을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에스노그래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
석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은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 구성된 도시 커먼즈다. 커먼즈의 세 가지 구성 요소와
요소 간 상호 관계성을 기술하여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존재를 보였다.
둘째, 사례연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원이 결핍한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

23) Taylor(1982)는 현대사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주장했다. 첫째, 공유된 가치와 신념, 둘
째,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며, 동시에 다면적, 복합적인 관계, 셋째, 호혜성의 실천이다.

먼즈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공동 문제와 중추 공유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도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볼 몇 가지 지점이 있다. 도시화율이 81%에 이르렀는데도 국내 커먼즈 연구의 대다수가 농산어촌 소재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커먼즈의 형성과 발전이 여전히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커먼즈 연구 동향을 보면 이러한 현실이 연구 동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어자원(우양호, 2008; 김권호, 2016)과 수자원(홍성만 외, 2003; 주재복, 2003; 김선필, 2018), 공동소유의 목장(최현 외, 2016)이나 마을숲과 산(윤순진 외, 2009; 김우창 외, 2020) 사례처럼 천연자원 소유권을 공유하는 농산어촌 배경의 커먼즈 사례가 많다. 농산어촌에서는 애매한 소유권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협의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커먼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경합성이 높고 소유 구분이 명확한 도시는 사유화되었다. 물론 커먼즈는 소유(ownership)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stewardship)에 가깝다(Bollier, 2015: 154). 하지만 도시 내 토지와 건물 같은 물적 자원은 소유권과 관리권의 주체가 동일한 경향을 띠기 때문에 사유화된 도시 내 커먼즈는 형성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시는 정말 공유 가치를 상실했는가? 커먼즈는 자원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유무 혹은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원이 결핍한 돈의동 쪽방촌의 마을식당 현장에서 도시 커먼즈와 공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협동회는 지역 공동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규약을 만들면서 도시 커먼즈를 형성했다. 이는 자원에 의존치 않고 공유화 과정을 통해 커먼즈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있는 공유 가치를 공유화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삼자가 이를 주목하지 않아서 도시 커먼즈 사례가 더욱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유화된 도시에서는 농산어촌에 비해 더욱 작은 규모 단위에서 공유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공

유화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소규모 공유화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공유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공유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추 공유인을 도시 커먼즈 형성 요인으로 기술했다. 농산어촌을 비롯해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기존 커먼즈 논의에서는 공유화에 주목했다. 공유화 과정에 사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공유화의 주체인 개별 공유인에게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공동·체(體)로서 커먼즈만 주목했기 때문 아닐까? 공유화는 분명하게도 사람이 실천해내는 것이기에 커먼즈 형성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감정을 비롯해 각종 재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인구가 밀집한 공간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에 커먼즈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자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커먼즈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공유인의 공유화 과정을 거쳐야 커먼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공동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일상생활이다. 돈의동 마을 식당이 자원이 결핍한 환경에서도 커먼즈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식생활이 매일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공동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유 가치와 신념은 도시 커먼즈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공동 문제를 파악하고, 공동체 소속원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보는다면 커먼즈 형성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 중추 공유인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 또한 커먼즈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돈의동 쪽방촌 마을식당 사례를 통해 도시 커먼즈 형성에 있어서 공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존 도시 커먼즈 사례 연구가 공유화 과정에 주목하였다면 이 연구는 커먼즈 형성에 사람의 역할이 주요하다는 사실을 중추 공유인의 존재와

참여 과정을 통해 보였다.

이 연구는 지역 공동 문제와 중추 공유인을 도시 내 커먼즈 발생 요인으로 도출했다. 국내 도시 커먼즈 사례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 커먼즈 현장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도시 연구자의 관점으로 빈자를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의해 정의하고(Negri, 2014: 21) 빈자들이 생성하는 삶형태, 언어, 운동, 혁신능력 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Negri, 2014: 21) 연구다. 빈곤밀집지역에서 공유 가치를 회복하는 빈자의 실천 사례를 통해 도시의 공유 가치를 회복하고 모색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도시 커먼즈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마을식당 커먼즈를 분석한 사례로서 도시 커먼즈의 일반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돈의동 쪽방촌이라는 특정 지역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기반의 도시 커먼즈라는 점에서 지역 공동 문제의 유무나 종류, 마을 공동체 존재 유무, 중추 공유인의 존재 유무, 참여 강도 등 환경의 차이로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 현장 연구의 시간적 범위 상 비교적 최근인 2019~2021년 마을식당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따라서 마을식당의 토대가 되었던 반찬 나눔 사업에서 중추 공유인의 존재나 사업 형성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는 시간적인 한계를 지닌다. 마을식당 외에 협동의집, 돌봄 활동(요양서비스), 출자금 대출제도 등 다른 활동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에스노그래피 연구 방법을 택하여 내부자적 관점(Spradley, 2006)을 취하고 빈곤밀집지역이 지닌 가능성과 가치,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시도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들은 것을 해석하여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김영천, 2013)한다. 쪽방촌 내부와 외부(연구자나 대중)가 상응되도록 시도한 것이다. 에스노그래피의 목적은 한 전통의 사회적 행위를 다른 전통 관점에서 상응되게 보이도록 새

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것(Agar, 1985: 4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연구자의 해석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돌아보며 연구자의 한계를 생각해보기도 한다. 이 또한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며 연구를 매듭짓는다.

원고접수일: 2022.11.01.

1차심사완료일: 2022.11.21.

1차수정완료일: 2022.12.14.

2차심사완료일: 2022.12.22.

게재확정일: 2022.12.26.

최종원고접수일: 2022.12.29.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in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Focusing on the Field of the Cooperate Restaurant in
Donui-dong Jjokbangch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ers**

Hyeon Woo Lee, Seok Jeong

Which relation is between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and the amount of resources?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urban commons exist in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and, if so, how they differ from existing commons. Ethnography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show the existence and formation of urban commons in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terviews. The data analyzed according to case study analysis techniques and general guidelines for anthropological ethnographic study.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s the Cooperate Restaurant in Donui-dong Jjokbangchon and the fieldwork site is Donui-dong Jjokba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taurant is the urban commons consisting of resources, communities, and protocols. Second, it is similar to existing urban commons case in that it was formed around common problems in areas where resources were scarce, but it was different from the commons in the background of the loc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ird, the existence and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key commoner was described. Through this, it was shown that the role of 'people' in forming commons is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cademic discussion of urban commons by describ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ith existing theories by analyzing urban commons in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In addition, as a study that attempted to define and interpret the poor by possibility rather than deficiency, we intend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restoring and seeking share value through the case of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Keywords: Urban Commons, Commoner, Areas with Concentrated Poverty, Ethnography

참고문헌

- 강윤희. 2005.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263~285쪽.
- 국토연구원. 2007. 『국토연구방법론』.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쪽.
- 김권호.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쪽.
- 김다윤·김경만·김진. 2017.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밀집지역에 끼치는 영향: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8(2), 159~175쪽.
- 김민진·조현미. 2010. 「쪽방지역 주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의 재생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2), 183~205쪽.
- 김선희. 2018. 「커먼즈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지하수와 공동체 관계의 변동」. 《ECO》, 22(2), 101~141쪽.
- 김연상·원도연. 「격포어촌계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 어촌 사회적경제와 커먼즈의 관점」. 《지역사회연구》, 30(3), 1~22쪽.
- 김수현·원승욱·김소임. 2002. 『쪽방사람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신양·김현우·허남혁·윤김.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착한책가게.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II』. 아카데미프레스.
- 김자경. 2017.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약취 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67~117쪽.
-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2021.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 박서현. 2021. 「공공협력을 통한 커먼즈경제의 모색: 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도시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173~197쪽.
- 박윤혜·백일순. 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31(1), 208~245쪽.
- 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62~113쪽.
- 류석진·조희정·김용복. 2020.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로컬 자원과 자산화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2), 43~76쪽.
- 상종열. 2019.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 노숙인의 생활세계: 총체적 문화기술지 접근을 중심으로」. 《질적탐구》, 5(1), 139~172쪽.
- 손정목. 2005.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 신선화. 2016. 「마을만들기의 주민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수정. 2020. 「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과 해빛투게더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준호·민운기·이희환. 2019.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보고서.
- 우양호. 2008.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부산 가덕도 어촌계의 사례비교」. 《행정논총》, 46(3), 173~205쪽.
- 우에노 지즈코. 2020. 『논문 쓰기의 기술』. 도서출판 동녘.
- 유기현. 2021. 「도시 커먼즈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연구》, 11(1), 216~247쪽.
- 유재득·심복기. 2014.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의 주거 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13(6), 265~279쪽.
- 윤순진·차준희. 2009.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2), 125~166쪽.
- 윤여일. 2017.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71~109쪽.
- 이광석·Monica Bernardi·Jérémy Diaz·이현아. 2020. 『도시의 공유 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들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시사회경제센터.
- 이광석. 2020. 「공유도시 서울'과 도시 커먼즈적 진회」. 《공간과사회》, 30(2), 172~208쪽.
- 이누리·김결. 2017. 「서울시의 식품 사막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20(3), 79~90쪽.
- 이소연.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67~208쪽.
- 이승원.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사회》, 29(2), 134~174쪽.
- 이영아. 2015. 「한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분포 및 형성 과정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 18(1), 45~56쪽.
- 이용숙·이수정·정진용·한경구·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 이재민. 2019. 『마을 공동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해리. 2019. 「먹거리 커먼즈와 청주시 지역먹거리정책의 방향」.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107~156쪽.
- 이현주·안기덕. 2013a.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보건의사회연구》, 33(2), 33~62쪽.
- 이현주·엄명용. 2013b.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39(2), 143~176쪽.
- 이현옥·이은정. 2013. 「동자동 쪽방 주민의 생활경험과 주민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281~304쪽.
- 이희환. 2017. 「새로운 도시운동을 준비하는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 《황해문화》, 95, 240~248쪽.

- 전지혜·차선화·정혜주·김진성·서옥영·조승화. 2015. 「쪽방 거주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5~35쪽.
- 전영수. 2019. 「새사바에시의 인구증가와 지역활성화」. 《비교일본학》, 47, 67~94쪽.
- 정남영. 2015.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인문학》, 14, 89~122쪽.
- 정석·김택규. 2017.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도시설계》, 16(5), 123~138쪽.
- 정문기·김용희·송용훈. 2015. 「마을만들기에서 참여동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유대감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성미산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4(4), 99~128쪽.
- 정문수·민경찬. 2017. 「농촌 마을공동체발전과 공동자원 관리」. 《공간과 사회》, 27(3), 243~273쪽.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쪽.
- _____.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17, 119~163쪽.
- _____.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60쪽.
- 정택진. 2020. 「쪽방촌의 사회적 삶: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찬. 2022. 「토지독점에 기초한 부동산 재벌의 도시지배와 '홍콩 현상」. 《역사비평》, 138, 96~132쪽.
- 조자영·최재성. 2020.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과 우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의 조절효과」. 《사회보장연구》, 36(3), 163~189쪽.
- 최미경·상종열. 2019. 「가족처럼 살아가는 쪽방촌 알코올 의존자들의 일상 탐구」. 《융합정보논문지》, 9(5), 235~242쪽.
- 최유진. 2020. 「도심 속 쪽방촌의 새로운 유형 제안: 서울시 돈의동 쪽방촌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김준희·김기태·홍정훈·김원진·이탄희·이동현·구형모. 2020. 『떠도는 사람들의 빈곤과 범죄 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경향신문.
- 최준식. 2018. 『익선동 이야기』. 주류성.
- 최태현. 2021. 『모두를 위한 사회 연구』. 도서출판 법문사.
- 최현·김선필. 2016.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제주 가시리의 사례」. 《공간과 사회》, 26(4), 267~295쪽.
- 탁장한. 2020. 「빈곤밀집지역 내부의 인간관계 탐구: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IDI 도시연구》, 17, 335~375쪽.
- 하성규·서종균·최지훈. 2000. 『쪽방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하춘·김혜민. 2017.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한상진. 2018.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울산의 영남 알프스, 태화강을 중

- 심으로. 《ECO》, 22(2), 77~100쪽.
- 한소영. 2017. 「쪽방거주 지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이중적 심리. 《서울도시연구》, 18(1), 97~121쪽.
- 한윤애. 2016.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 사회》, 26(3), 42~76쪽.
- 한혜정. 2021.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결 관계와 구조적 특성 분석: 월산동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3), 125~156쪽.
- 허소영. 2010.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한국노년학》, 30(1), 241~260쪽.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1), 243~276쪽.
- 홍성만·주재복. 2003.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2(1), 469~494쪽.
- 홍성만·주경일·주재복. 2004.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07~132쪽.
- 홍지은. 2022. 「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ECO》, 26(1), 53~92쪽.
- 황세인. 2015. 「쪽방거주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분산형 쪽방지역 중 부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405~438쪽.
- Agar, M. 1985. *Speaking of Ethnography*. A Sage University Paper(이용남·노명희·박한기 옮김. 1993. 『민족지학 이야기』. 교육과학사).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New Society Publishers(배수현 옮김.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도서출판 갈무리).
- Coffey, A. 2018. *Doing Ethnography*. Sage Publication Ltd.
- Daynes, S·Williams, T. 2018. *On Ethnography*. Polity.
- Feinberg, A. 2021. "Diversity and Challenges of the Urban Commons: A Comprehens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5(1), pp.1-20.
- Gottdiener, M·Budd, L. 2005. *Key Concepts in Urban Studies*. Sage Publication Ltd(남영호·채윤하 옮김. 도시연구의 주요 개념. 2013).
- Geddes, P. 1915. *Cities in Evolution: an introduction to the town planning movement and to the study of civics*. Routledge.
- Harvey, D. 2011. "The Future of the Commons." *Radical History Review*[한서린 옮김. 2017. 「커먼즈의 미래. 《창작과비평》, 45(3), 54~64쪽].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New Series*, 162(3859),

pp.1243-1248.

- Hess, C. 2008. "Mapping the New Commons." Presented at The Twelf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Cheltenham, UK, 14-18 July.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s." *Rural Sociology*, 20, pp.111-123.
- Mattilda, H.·Olsson, P.·Lappi, T.·Ojanen, K. 2021. "Ethnographic Knowledge in Urban Planning: Briding the Gap between the Theories of Knowledge-Based and Communicative Planning." *Planning Theory & Practice*, 23(1), pp.11-25.
- Klinenberg, E. 2018. *Palaces for the People*. Crown(서종민 옮김. 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웅진지식하우스).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정남영 옮김.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도서출판 갈무리).
- Negri, A·Hart, M. 2011. *Commonwealth*(정남영·윤영광 옮김. 2014. 공동체. 사월의책)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윤홍근 옮김.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Sage Publication Ltd.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신재영 옮김. 2006. 『참여관찰법』. 시그마프레스).
- Taylor, M. 1982.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송재우 옮김. 2006. 『공동체, 아나키, 자유』. 이학사).
- Yin, R.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신경식·송민채·신현섭·조수현·서이안 옮김. 2021. 『사례연구방법』. 한경사).